

#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 본회, 양돈업 등록제 빠른 시 일 내 참여키로 결의



본회는 12월 2일(목) 본회 회의실에서 최영열 회장 등 본회 이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제 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들이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2004년 추경예산 및 향간 전용(안) 및 예산 총회와 정기 총회의 통합 개최(안), 축산환경대책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2005년 한국 국제축산박람회를 맞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가축분뇨 자원화법 제정 방향 논의

본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에 포

함할 제도 개선(안) 등을 수립해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12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유재일시설환경컨설팅 유재일 대표,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 유용희 연구관,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부 김동수 차장과 본회 김동성 전무 등이 모인 가운데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갖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건강과 친환경, 토양환경 보전 등을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관련 법'의 목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범위를 가축분뇨 및 세정수, 깔짚 등까지 포함시켜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범위로 정해 타 법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분총량제에 따른 화학비료 저감 및 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 토양관리, 비료관리법 등 가축분뇨 이용에 대한 사항과 통합관리운영센터에 대한 사항, 분뇨 품질 관련 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법에는 정부, 지자체 등 상용화 지원책 및 화학비료 감축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등의 필요성을 제시

했다. 한편 현행 오분법 중 배출원 단위는 하향 조정하고, 퇴비화 부분 조항에서 '폐수'라는 용어를 '가축분뇨'로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사료·약취·생산이력제 등 연구 '필수'

### - 중·장기적 정책연구과제 제안

본회는 12월 10일 농림부에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료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배합사료의 유통실태 등을 조사해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과제 제안에 양돈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와 관련 악취의 특성 및 양돈장 악취 발생 실태, 해외 양돈장의 악취 발생 및 관리 등의 사례를 연구해 악취 저감 및 관리 방법을 포함시켰다. 또 '한국형 돼지생산이력제'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도 제시됐다. 아울러 본회는 본회 중등능력검정소와 한국중축개량협회의 농장검적 누적 데이터를 통합하는 등의 검정소 선발전

수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독설비 대상 확대 및 보상금 범위 확대토록**

본회는 11월 24일 농림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체의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개정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소독설비를 갖춰야 하는 자에 '축분처리업체'도 포함시키고,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소독기를 장착하고 농장 출입 전 운반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제48조(보상금)에 대해서는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또는 영 제8조와 규정에 의한 사료 제조시설 및 열처리시설 등에 살처분해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처분 명령 및 번식돈 전두수 도태권고를 이행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돈열·돼지단독 혼합백신 공급해야”**

본회는 11월 26일 농림부에 기존 관급 돈열 백신을 대체해 돈열 및 돼지단독 혼합백신이 공급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양돈농가에서는 돈열과 돼지단

독 예방접종 시기가 비슷해 양돈장에서 인력 낭비 및 자돈 예방접종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위축된 자돈들이 PMWS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회는 많은 양돈농가들이 예방접종 횟수를 줄이기 위해 관급 돈열 백신을 사용하는 대신 별도로 돈열 및 돼지단독 혼합백신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돈열 및 돼지단독 혼합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등록제는 방역 및 친환경축산 위한 제도 될 것”**

- 최 회장, KBS 농수산 정책진단 프로그램서 강조

최영열 본회 회장은 12월 4일 아침 5시 10분에 방송된 KBS 1라디오 농수산 정책진단 프로그램에서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한 본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농림부 축산정책과 안호근 과장이 출연해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농가들이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축산업 등록제 시행시 농가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 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농가에는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호근 과장은 축산업 등록제는 농가를 어렵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전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2005년 2월 시행되는 악취방지법과 관련해 축산농가들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도 밝혔다.

**“녹지지역에서 축사 건폐율 상향조정해야”**

- 본회, 농림부에 건축법 등 행정규제 정비 의견 전달

건축법 내 건폐율 제한과 관련해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라는 규제 내용을 '100분의 30이하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는 11월 24일 축산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규제 정비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으며, 건폐율 제한 규정에 대해 위와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는 축산업의 경우 축사 신축시 과도한 토지매입 비용 및 증·개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식품 안전성 제고 유도**

- 본회,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에 본회의 임원 및 지부(회)장들이 앞장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는 최근 수입 돈육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자 스스로 우리 먹거

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달성코자 분회 임원 및 지부(회)장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했다.

### 돼지 생산이력제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

- 본회, 12월 23일(목)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본회와 농협이 공동주최하고 축산신문사가 주관하는 '돼지 생산이력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심포지엄'이 12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석희진 과장이 참석해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또 ▲서울대 최영찬 교수는 '선진국의 돼지 생산이력제 추진 동향과 국내 도입 대책' ▲부경양돈조합 생산이력제 T/F팀 김규환 팀장은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 생산이력제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건국대 축산대학 정찬길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고,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이상철 연구관과 경기도 축산과 조총희 과장, 본회 최영열 회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강광파 상임이사, 축산물등급판정소 윤영탁 부장, (주)선진 김성훈 박사, 롯데백화점 이병수 과장 및 삼성플라자 이장호 SM의 지정토론이 실시되었다.

### 양돈농가, 2005년 돼지 산지 가격 '고돈가' 전망

설문조사

지난해는 100kg기준 돼지 산지가격이 평균 18만5천원이었으며, 올해는 산지 가격에 평균이 23만5천원 정도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귀하는 2005년도에 100kg 기준 돼지 산지가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총 응답자 수 : 731명)

기간	2004-11-29 ~ 2004-12-15
18만원 이하	46 (6.3%)
19만원	23 (3.1%)
20만원	49 (6.7%)
21만원	33 (4.5%)
22만원	77 (10.5%)
23만원	127 (17.4%)
24만원 이상	376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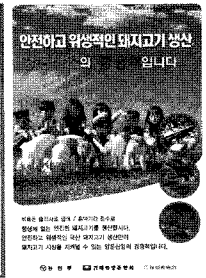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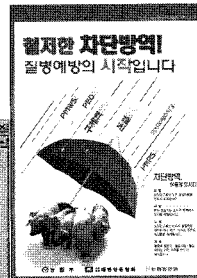
양돈농가들은 2005년에도 돼지 산지가격이 24만원 이상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회가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5년도에 100kg 기준 돼지 산지가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731명 중 376명인 51.4%가 24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고돈가 전망을 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

또한 23만원 정도로 예상한 응답자는 17.4%, 22만원 정도로 예상한 응답자는 10.5%를 차지해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 20만원 이상은 훌쩍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18만원 이하는 6.3%, 19만원 3.1%, 20만원 6.7%, 21만원 4.5%를 차지했다.

### "철저한 차단방역! 질병예방의 시작입니다"

- 본회, 방역 및 안전 돼지고기 생산 포스터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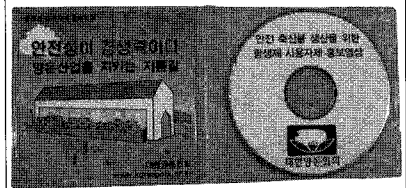
본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 돼지고기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양돈산업에 있어서 축산업



방역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방역 포스터도 제작했다.

본회는 포스터를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및 가축방역과, 113개 본회 지부(회), 142개 지역축협·양돈조합, 농협중앙회 양돈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회 1·2검정소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축산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배부해 방역 및 안전 돼지고기 생산의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포스터는 94개의 도축장에도 배부됐다.

### 본회, 항생제 사용자제 홍보영상물(CD) 제작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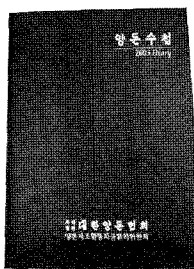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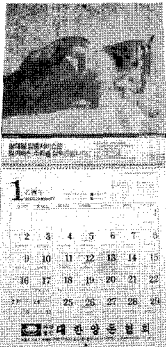
본회는 12월 1일 2004년 양돈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항생제 사용자제 홍보영상물(CD)' 300개를 제작해 각 지부 및 지역 축협 등에 배포했다.

본회는 농가에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와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 농가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자 이

번 영상물을 제작했다.

전체 7분 가량의 분량으로 제작된 영상 홍보물에는 항생제 사용을 자제할 것과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잔류물질 초과에 따른 축산물 불신, 항생제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수록됐다.

**본회, 2005년 양돈수첩·캘린더 제작 배부**



본회는 최근 2005년 양돈수첩과 캘린더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 및 본회 지부,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도축장 및 축협 등 양돈관련 단체, 양돈관련 업계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양돈자조금으로 제작된 2005년 양돈수첩은 총 268쪽에 18절(가로 17cm×세로 24cm)크기로 본회 각 지부 전화번호 및 주소록,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축산관련기관·단체, 업계 등 전화번호 및 주소록과 국내외 양돈현황을 비롯해 돼지생산비 등 국내외 양돈관련 통계자료 등 양돈관련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2005년도 캘린더는 본회가 지난 6월말 실시한 「돼지사진 콘테스트」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선주씨의 '현장학습' 등 돼지사진 수상작 12컷이 수록됐다.

**본회, 2004년도 돼지공인검정원 양성교육 실시**



본회 제1검정중등능력검정소(소장 강왕근)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검정소 교육장에서 2004년도 돼지 공인검정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능력검정 전문인력 양성, 농가신뢰도 증족, 자가 검정으로 질병전파기회 차단, 개량기반 구축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실시된 2004년도 돼지 공인 검정원 양성교육에는 19명이 참여해 교육을 수료했다.

**제1검정소, 제243차 경매 최고 낙찰가 1천1만원**

11월 22일(월) 본회 공인중등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43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최고 낙찰가가 1천1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문경 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86점) 슈퍼돈이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뇌곡리 321-1번지 이천시센타 이종영씨에게 최고가인 1천1만원에 낙찰되는 등 낙찰총액은 1억5천240만원이었다.

한편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1백4만3천836원으로 나타났으며, 슈퍼돈 4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8두를 포함 총 148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46두가 낙찰됐다.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23만5천263원(95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8만7천255원(51두)으로 나타났다.

**제2검정소, 제172차 검정돈 평균 낙찰가 90만1천원**

12월 10일(금) 본회 공인중등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72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낙찰가는 90만1천890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4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8두를 포함해 총 164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모두 낙찰됐다. 이날 수컷 평균 낙찰가는 98만4천597원(124두)이었으며, 암컷 평균 낙찰가는 64만5천500원(40두)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86점) 슈퍼돈이 경남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974번지 대성FINE 양철씨에게 최고 낙찰가인 370만원에 낙찰되는 등 총 낙찰금액은 1억4천7백91만원을 기록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영광지부 '김봉환' 회원 석탑산업훈장 수상**



11월 11일 제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축산발전·친환경축산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광 염산면 신성리 '김봉환' 씨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봉환씨는 농림부에서 시범적

으로 시행하는 축산업 등록과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양돈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100% 포도밭에 살포하는 순환농법으로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앞장서 왔다.

### 아산지부, 아산시의회 의장에 감사패 전달



이한욱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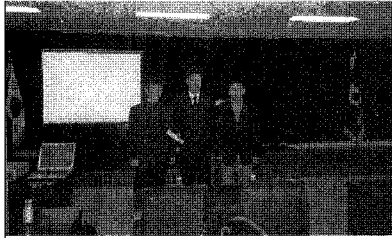
아산지부(지부장 서석천)는 12월 17일 아산지부 송년 모임에서 아산시의회 이한욱 의장에게 양돈 산업 발전의 공을 기려 본회 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한욱 의장은 양돈장이 PMWS 등 질병으로 인해 자돈 폐사가 많아 시의회 예산을 추경해 2004년 한해동안 자돈 인큐베이터 돈사 25대를 시 보조비로 50%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아산 관내 양돈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한편 아산시는 자돈 인큐베이터가 1대당 1천800만원으로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설치시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시 보조비 50%인 9백만원씩을 지원했다.

### 최영열 회장, 경북도협의회 및 영천지부 방문

본회 최영열 회장은 12월 10일(금) 경북 영천지부를 방문하여 경북도협의회와 영천지부 월례회에 참석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돈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본회의



활동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천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경북도협의회에서는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등 경북지역 지부장 및 양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자조금 사업을 비롯하여 양돈장 소모성 질병, 축산업등록제, 분뇨처리문제 해결방안, 사료문제, 방역문제,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적극적인 참여 등을 논의했다.

또한 오후에 열린 영천지부 월례회에도 참석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료가격 인하 요구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 ▲효과적인 분뇨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 김해지부, 3P 및 오제스키병 방역요령 교육 실시



김해지부(지부장 이재식)는 11월 24일(수) 지부 사무실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서울대 수의대 박봉

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PMWS, PRDC, PED 및 오제스키병 방역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경산지부, '제4회 경산 양돈인의 밤' 개최

경산지부(지부장 정병규)는 12월 16일(목) 영남대학교 국제관 3층 그랜드홀에서 '제4회 경산양돈인의 밤'을 개최했다. 양돈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참석자들은 올 한해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산 양돈 발전에 기여한 박해수 농·축산과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양주지부, '양돈인의 밤' 개최로 화합의 장 마련



양주지부(지부장 조윤상)는 12월 17일(금) 귀메골에서 양주지역 양돈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돈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에는 임충빈 양주시장을 비롯해 현삼식 농림축산개발국장과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박재덕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주축산업협동조합장 등과 150여명의 양돈인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래의 도약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친환경 축산을 추구하며 서로 단합해 양돈산업을 발전시키자고 다짐했다. **양주**